

##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박 수 진

김 종 남<sup>†</sup>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19세~35세 초기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우울척도(K-CES-D), 대인관계 욕구 척도(INQ-R), 삶의 이유 척도(RFL), 자살사고 척도(SIQ)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4.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한 결과 우울은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삶의 이유는 우울, 자살사고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기 성인, 우울,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이유, 자살사고

\* 본 연구는 박수진(2017)의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의 일부를 한국상담심리학회 2017년 10월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바 있음.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김종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7621 E-mail: Kimjn@swu.ac.kr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16.4명과 25.1명으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초기 성인기는 발달 특성상 의존과 독립의 균형,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한 위기에 당면하기 쉽다(권중돈, 2009). 또한 자살 시도, 진지한 자살생각과 자살 성공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Beautrais, 2003).

한편, 초기 성인의 자살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살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6조 4,769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기 성인기의 인구 감소는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비율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김명원, 2012). 이러한 측면에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현순, 김병석, 2008; 박순천, 2005; 여지영, 박태영, 2013; 이윤주, 2008; 이지숙, 2013; 이현정, 2015). 최근에 대학생으로 한정된 몇몇 연구가 있지만(강석화, 나동석, 2013; 김신연, 채규만, 2013; 노상선, 조용래, 최미경, 2014; 양선미, 박경, 2015), 일반 성인 20~30대를 대상으로 폭넓게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초기 성인의 자살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초기 성인의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자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박경, 2009) 둘째, 자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한데 자살사고는 자살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변인이다(Bonner, & Rich, 1987; Reynolds, 1991; Miranda, Tsypes, Gallagher, & Rajappa, 2013). 또한 자살 시도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윤리적,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임수영, 1996).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자살사고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자살 및 자살사고와 관련된 변인들 중 자살을 이끄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우울이라고 알려져 왔다(김민경, 2011; 차미영, 강승호, 2010; Bagge, Lamis, Nadorff, & Osman, 2014; Brent, Perper, Moritz, Baugher, & Allman, 1993). 그러나 자살은 단일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나 성인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효창, 2010). 최근, Joiner(2012)가 제안한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변인으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습득된 자살 실행력이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살 관련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이 초기 성인기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지만 성인 경우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변인과 더불어 이 현상을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김효창(2010)에 의하면, 자살에 이르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주의 문화로 사람들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최상진, 최인재, 2002). 다양한 심리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초기 성인 경우,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기도 하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1, Kandel, & Davies, 1986).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자신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게 되며 더욱이 사회적 철수는 우울의 일반적인 특징이다(Kandel & Davies, 1986; Kleiman, Liu, & Riskind, 2013).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우울한 사람들은 특히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왜곡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우울이라는 정서 상태는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에 대한 지각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Bower, 1981), 이러한 과정은 Joiner가 제안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에서 중요한 변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의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 좌절된 소속감, 자기에게 해를 입힐 능력과 같은 세 가지 구성개념이 나타날 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살이 일어난다고 하였다(Davidson, Wingate,

Rasmussen, & Slish, 2009; Ribeiro, & Joiner, 2009).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습득된 자살 실행력이 아닌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짐스러움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지각하고 가족·친구·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O'Keefe, & Wingate, 2013; Joiner et al., 2009).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집단에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야기된다(Nsamenang, Webb, Cukrowicz, & Hirsch, 2013). 이처럼 스스로를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Davidson et al., 2009). 다음으로 좌절된 소속감은 사회적 집단에 속해있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avidson, Wingate, Grant, Judah, & Mills, 2011).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독립적인 변인이라 볼 수 있다(Ribeiro, & Joiner, 2009). 또한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과 Joiner(2008)는 부정적 자기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부정적 정서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지각된 짐스러움'은 슬픔과 의기소침한 상태의 정서적 요인인 우울과 구별되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믿음인 절망감과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Freedenthal, Lamis, Osman, Kahlo와 Gutierrez(2011)는 대인관계 욕

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785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욕구 척도(INQ), 우울 척도(BDI-II), 절망감 척도(BHS), 자살 사고 척도(MSSI)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은 우울, 절망감과 각각 변별 타당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우울은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울이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심리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자살과 관련된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노상선, 조용래, 최미경, 2014). 자살의 원인 탐색에 대해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집단이나 그 집단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드물다(이기원, 현명호, 이수진, 2010). Heisel, Neufeld와 Flett(2016)는 자살과 자살예방에 대한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하는 관련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고 혹은 자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정의(Bagge et al., 2014)되는 삶의 이유에 초점을 두었다.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동시에 이를 낮추주는 보호효과를 가지는 변인(Galfalvy et al., 2006)이며 본 연구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울장애 및 우울감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Nemeroff, Compton, & Berger, 2001; Garlow et al.,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유혜선(2015)은 20~50대 성인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40대는 자아 존중감, 우울, 가족 관련 만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50대에게는 우울과 가족관련 만족도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30대의 경우, 우울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20대와 30대 경우 자아 존중감 등의 요인보다 우울이 이들의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주요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18세~29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발병률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우울이 20대와 30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 및 행동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각된 짐스러움 경우, 자기 자신을 ‘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영구적이고 지속될 것이라 인식함으로써(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끝내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계속 살아가는 것 보다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Ribeiro, & Joiner, 2009). 그리고 가족과 친구, 사회적 집단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

지 않다는 느낌 혹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살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Davidson et al., 2009). 또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죽음 이전에 종종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Van Orden et al., 2008), 이는 자살사고 혹은 자살시도 및 치명적인 자살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이다(Van Orden et al., 2010).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Van Orden, Bamonti, King과 Duberstein(2012)는 60세 이상의 노인 65명을 대상으로 우울이 같은 시기에 측정된 지각된 짐스러움뿐만 아니라 2달 후에 측정된 지각된 짐스러움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amena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18~64세를 대상으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Kleiman 등(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한 결과, 우울 수준의 변화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무능하고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단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존재라고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짐스러움은 대학생, 자살자, 자살시도자들,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에도 자살사고, 자살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Ribeiro, & Joiner, 2009).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 한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Davidson et al., 2009; 유계숙, 손현겸, 2015). 또한 Kleiman, Law와 Anestis(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인지양식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완전 매개효과와 좌절된 소속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살 관련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 Pettit, 2012; Joiner et al., 2009). 국내에서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나,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정미 등(2010)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주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각된 짐스러움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추경진과 이승연(2012)은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지각된 짐스러움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과 노인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석예진(2014)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hn, Cukrowicz, Linton, Prabhu(2011)은 60~93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짐스러움이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Kleiman 등(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의 변화가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살사고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반면 이와 상이한 연구 결과 역시 나타난 바 있다. Davidson, Wingate, Grant, Judah와 Mills(2011)는 18세~45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은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Pfeiffer 등(2014)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좌절된 소속감은 3개월 후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지각된 짐스러움은 3개월 후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좌절된 소속감보다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 청소년(석예진, 2014; 추경진, 이승연, 2012; 하정미 등, 2010), 대학생(유계숙, 손현겸, 2015, Davidson 등, 2009, Kleiman 등, 2013, Kleiman 등, 2014)과 노인(Jahn, 2011; Pfeiffer 등, 2014; Van Orden 등, 2012)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성인의 자살 관련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Van Orden 등(2008)은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나 20대와 30대에게 우울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유혜선, 2015)을 바탕으로 볼 때,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Davidson 등(2011)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만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feiff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구성개념을 측정했기 아니라, BDI-II를 사용하여 지각된 짐스러움의 구성요소인 자기-혐오를 평가하고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좌절된 소속감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즉,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에서 외로움, 대인관계 갈등,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 등을 포함하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구성개념을 부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신 장애, 성격 장애 혹은 성격 특질, 의학적 질병과 같은 자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Heisel, & Duberstein, 2005). 이와 관련하여 삶의 이유(Reasons for Living)는 비교적 최근에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지지되고 있다. 삶의 이유를 개념화한 Linehan, Goodstein, Nielsen, Chiles(1983)은 비관적인 신념이 자살사

고와 자살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반면, 적응적인 신념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삶의 목표에 대한 신념이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삶의 이유’라고 명명하고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생존과 대처 신념(Survival and Coping Beliefs), 가족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 to Family), 자녀에 대한 걱정(Child-Related Concerns), 자살에 대한 공포(Fear of Suicide),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Fear of Social Disapproval), 도덕적 금기(Moral Objection).

이기원 등(2010)이 삶의 이유 척도를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결과,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던 원척도와 달리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생존과 대처 신념’으로 원척도와 같은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요인2는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요인3은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마지막으로 도덕적 금기가 추출되지 않은 대신에 미래에 대한 계획 및 미래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미래기대’라는 새로운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동안 삶의 이유의 전체 척도 혹은 하위척도는 다양한 임상 및 비임상 집단에서 연구되어 왔고, 일관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Lizardi et al, 2007; Strosahl, Chiles, & Linehan, 1992). Connell과 Meyer(1991)은 2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삶의 이유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살을 생각해보거나 자살 시도가 있었던 집단은 전체 삶의 이유 점수가 낮았으며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은 전체 삶의 이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삶

의 이유가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게 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이유 수준이 낮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과 자살사고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관한 걱정’, ‘도덕적 금기’는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스스로 자살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걱정하는 것은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iller, Segal와 Coolidge(2001)는 60~95세 노인과 17~34세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와 삶의 이유 척도를 사용하여 자살사고와 삶의 이유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자살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삶의 이유 하위요인 중 자녀에 관한 걱정과 도덕적 금기만이 초기 성인 집단보다 노인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종교적 신념은 노인이 흔히 쓰는 대처 전략이며 초기 성인 집단과 달리 90%이상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Mize와 Ellis(2003)는 17~24세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초기 성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삶의 이유 하위변인 중 자녀에 관한 걱정 대신 친구에 대한 책임감을 연구자가 임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살사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이유 하위변인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삶의 이유, 즉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죽음에 대한 공포',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금기', '친구에 대한 책임감'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McLaren(2011)은 삶의 이유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6개의 하위요인은 자살사고 혹은 자살행동과 부적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이유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서야 연구가 시작하였다. 김동연(2010)은 한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삶의 이유의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처신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도덕적 금기 수준에 따라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죽음공포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생존과 대처신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금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최현정과 홍혜영(2011)은 국내에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삶의 이유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이유 전체와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자살사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미래기대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죽

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낙관성은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은 삶의 이유를 증가시키고,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지영(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임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의 이유 하위변인 중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이유를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각각 하위변인들의 영향을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agge 등(2014), 박소영과 박경(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우울한 개인에게 자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할 때 삶의 이유에 초점을 두고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Segal, Gottschling, Marty, Meyer와 Coolidge(2015)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전체 삶의 이유가 우울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Malone 등(2000)은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가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이유 수준이 높은 우울 장애 환자들은 자살시도력이 없었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은 우울 장애 환자들은 자살시도력이 있었고 두 집단에서 6개의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Lizardi 등, 2007; Malone 등, 2000; Segal 등, 2015)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울이 삶의 이유와 부적 상관이 있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우울 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 수준이 달랐다는 결과는 삶의 이유가 우울이 자살사고 및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울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하며 삶의 이유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는 자살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해 적절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Pfeiffer et al.,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는 ‘왜’ 자살사고를 갖게 되는지 혹은 ‘언제’ 자살사고를 갖거나 갖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살사고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삶의 이유와 하위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과정(mechanism)

을 검증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개입 및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짐스러움은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좌절된 소속감은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삶의 이유는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 방 법

### 연구 대상

초기 성인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다. Havighurst(1972)는 성인기 발달과업에 따라 성인초기를 18~35세로, Erikson(1956)은 성인초기를 21~40세로, Levinson(1978) 등은 초기성인 전환기(17~22세), 초기 성인 진입기(22~28세), 30세 전환기(28~33세), 초기 성인 절정기(33~40세)로 구분하였다(김혜진,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자살률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와 더불어 30대 후반 경우 앞서 정의한 초기 성인의 발달 과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Havighurst(1972)의 정의에 따라서 19세~35세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이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제외하였다. 총 367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34	40.5
	여성	197	59.5
연령	19세	14	4.2
	20세~24세	139	42.0
	25세~29세	127	38.4
	30세~35세	51	15.4
직업	무직	24	7.3
	직장인	128	38.6
	대학생	130	39.3
	대학원생	32	9.7
학력	기타	17	5.1
	고등졸업	155	46.8
	대학졸업이상	156	47.2
동거상태	석사졸업	20	6.0
	유	261	78.9
거주지	무	70	21.1
	서울도	167	50.4
	경기도	83	25.1
	강원도	2	0.6
	충청도	2	0.6
	경상도	77	23.3
합계		331	100

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그 중 무응답 혹은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 대상의 연령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36부를 제외한 331부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5.31세( $SD=4.13$ )이고, 성별은 남성이 134명(40.5%), 여성이 197명(59.5%)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임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소속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를 받았고, 2017년 1월 31일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승인 받았다(IRB 승인 번호: IRB-2016A-20). 2017년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편의 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고 서울 및 경기도,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5세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의 경우, 연구자가 각 강의의 담당 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문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직장인 및 일반 성인 경우 도서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 측정 도구

##### 한국판 우울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K-CES-D)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로 0점 '극히 드물다' ~ 3점 '거의 대부분 그렇다' 로 평정되고 총 20문항이며 4, 8, 12, 16번은 역채점된다(예:'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다.

##### 대인관계 욕구 척도(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

대인관계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와 Joiner(2008)가 개발한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INQ)를 Van Orden, Cukrowica, Witte와 Joiner(2012)가 개발 및 타당화 하였고 최민영(2015)이 번안-역번안을 거쳐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요인구조를 확인한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총 15문항이며(예:'나는 사회에 짐이 되는 것 같다'), 7, 8, 10, 13, 14, 15번은 역채점된다(예:'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경 써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높고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민영(2015)의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5, 좌절된 소속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6, 좌절된 소속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삶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삶의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Linehan 등(1983)이 개발 및 타당화하고 이기원 등(2010)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요인은 '생존과 대처 신념' 17문항,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7문항,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5문항, '미래 기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30대 초기 성인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하는 경우 점수의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 걱정에 해당하는 2문항('자살은 내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6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31점에서 18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이유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처 신념'이 높을수록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시도에 대한 공포와 타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에 대한 걱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책임과 자녀 걱정'은 자살 이후에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어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기대'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기대 하는 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원 등(2010) 연구에서 생존과 대처 신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5,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 가족책임과 자녀 걱정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0, 미래 기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생존과 대처 신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6,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 가족책임과 자녀 걱정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0, 미래 기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 자살사고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안하고 서미순(200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자살사고가 있는지 묻는 총 19문항(예:'나는 내가 살아 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우경과 김진숙(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SPSS Macro, Mplus7.4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5/2013)의 Process를 이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도 매개효과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Baron과 Kenny(1986)의 인과단계 방법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매개변인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가설검정은 3개의 인과단계를 차례로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방법처럼 가설검정을 많

이 하면 할수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방법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Hayes, 2015/2013). 또한 매개효과(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해야 하는 Sobel 검정 대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Sobel 검정과는 달리 부트스트래핑은 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ab의 표본분포의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검정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Hayes, 2015/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를 모두 비표준화 계수로 보고하였다. 표준화 계수는 단순히 하나의 임의 측정 척도를 또 하나의 임의 척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표준화 효과는 표본의 변동성 관점에서 척도화 되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척도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연구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모형의 계수,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총 효과는 비표준화 계수로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Hayes, 2015/2013)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와 삶의 이유 하위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삶의 이유 척도의 요인구조가 본 연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Mplus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PSS 24.0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

변인을 평균 중심화한 경우, 상수 효과는 조절효과가 있는지 대표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건부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Aiken, & West, 1991: 양귀화, 2014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ayes의 PROCESS를 이용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분석 중 하나인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으로 조건부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조절변인의 특정값을 선택하여 특정 값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조건부효과를 계산하고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Hayes, 2015/2013).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하여 조건부 효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 결 과

###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608, p<.01$ )을 보였고,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r=.597, p<.01; r=.555,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688, p<.01$ )을 보였고, 좌절된 소속감도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461, p<.01$ ). 반면, 우울과 삶의 이유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512, p<.01$ ), 삶의 이유와 자살사고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566, p<.01$ )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우울	1								
2. 지각된 짐스러움	.597**	1							
3. 좌절된 소속감	.555**	.531**	1						
4. 자살사고	.608**	.688**	.461**	1					
5. 삶의 이유	-.512**	-.511**	-.538**	-.566**	1				
6. 생존과 대처신념	-.621**	-.542**	-.593**	-.649**	.894**	1			
7.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022	-.132*	-.098	-.098	.606**	.217**	1		
8. 가족에 대한 책임감	-.265**	-.337**	-.373**	-.302**	.694**	.479**	.474**	1	
9. 미래기대	-.441**	-.477**	-.473**	-.466**	.741**	.674**	.291**	.583**	1
M	16.10	9.42	24.29	29.91	133.15	79.21	28.21	15.10	10.20
SD	9.80	5.92	8.97	14.06	22.57	15.52	8.23	3.15	2.05

주. \*\* $p < .01$ , \* $p < .05$

매개효과 검증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에는 우울, 종속변인에는 자살사고, 매개변인에는 지각된 짐스러움을 투입하여 4변 모 델로 설정한 뒤,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울은 자살사 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 $B = .872, p < .001$ )을 주 었고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6.9% ( $R^2 = .369$ )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지각된 짐 스러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 = .361, p < .001$ ) 을 주었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짐스러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5.6% ( $R^2$

$= .356$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자살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B = 1.201, p < .001; B = .439, p < .001$ ). 즉, 독립 변인인 우울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짐스 러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 은 53.4% ( $R^2 = .534$ )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사 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지각된 짐스 러움이 추가적으로 16.5%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각 경로의 효과크기 및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2954 \sim .5950]$ 으 로 나타나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지각된

표 3.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R <sup>2</sup>	ΔR <sup>2</sup>	F
지각된 짐스러움	우울	0.361	.027	13.481***	0.3079	0.4132	.356	.356	181.738***
자살사고	우울	0.872	.063	13.875***	0.7480	0.9952	.369	.369	192.516***
자살사고	지각된 짐스러움	1.201	.112	10.771***	0.9813	1.4198	.534	.165	187.911***
	우울	0.439	.067	6.512***	0.3062	0.5713			

주. \*\*\* $p < .001$

표 4.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872	.063	0.7480	0.9952
직접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439	.067	0.3062	0.5713
간접효과 (우울 → 지각된 짐스러움 → 자살사고)	.433	.077	0.2954	0.5950

짐스러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지각된 짐스러움 수준도 높아지며 이는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고, 우울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 $B = .872,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6.9% ( $R^2 = .369$ )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좌절된 소속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B = .508, p < .001$ )을 미쳤고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0.8% ( $R^2 = .308$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을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81, p < .001; B = .729, p < .001$ ). 즉, 독립변인인 우울이 높을수록, 좌

표 5.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R <sup>2</sup>	ΔR <sup>2</sup>	F
좌절된 소속감	우울	0.508	.042	12.092***	0.4250	0.5902	.308	.308	181.738***
자살 사고	우울	0.872	.063	13.875***	0.7480	0.9952	.369	.369	192.516***
자살 사고	좌절된 소속감	0.281	.081	3.458***	0.1210	0.4403	.391	.022	187.911***
	우울	0.729	.074	9.817***	0.5830	0.8753			

주. \*\*\*p<.001

표 6.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872	.063	0.7480	0.9952
직접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729	.074	0.5830	0.8753
간접효과 (우울 → 좌절된 소속감 → 자살사고)	.143	.052	0.0474	0.2525

절된 소속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은 39.1%(R<sup>2</sup>=.391)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좌절된 소속감이 추가적으로 2.2%의 증가된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0474~.2525]으로 나

타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거쳐서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좌절된 소속감이 상승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예측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절효과 검증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이기원 등(2010)이 타당화한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척도는 20대~60대를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는데 원척도의 6요인이 추출되지 않고 4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된 삶의 이유 척도가 본 연구의 대상인 초기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CFI와 TLI가 .90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간주된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에 의하면 삶의 이유 척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적

합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조절효과 분석 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서 각 변인의 평균을 뺀 평균중심화를 한 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울이 삶의 이유와 상호작용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삶의 이유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우울과 삶의 이유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우울과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에 대해 45.7% ( $R^2=.457, p<.001$ )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우울, 삶의 이유와 우울과 삶의 이유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t=-4.982, p<.001$ ),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은 49.6%( $R^2$

표 7. 삶의 이유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SRMR
4요인	1290.856***	371	0.871***	0.858***	0.087***	0.058***

주. \*\*\* $p<.001$

표 8.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R <sup>2</sup>	ΔR <sup>2</sup>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618	.068	9.089***	.457	.457***	138.206***
	삶의 이유		-0.215	.029	-7.300***			
	우울		0.545	.067	8.110***			
2단계	삶의 이유	자살사고	-0.187	.029	-6.422***	.496	.038***	107.103***
	우울×삶의 이유		-0.011	.002	-4.982***			

주. \*\*\* $p<.001$

=.496,  $p<.001$ )로 우울과 삶의 이유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3.8%( $\Delta R^2=.038$ ,  $p<.001$ )만큼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조절분석 시, 4가지 유형의 조절효과 유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표 9와 같다. 조절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우울이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계수( $b_1$ )은 양수이고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계수( $b_3$ )은 음수이므로 조절변인인 삶의 이유가 완충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데, 삶의 이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울과 자살사고에서 삶의 이유의 상호작용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와 상

수를 토대로 회귀방정식을 유도하였고, 우울과 삶의 이유의 평균,  $\pm 1$  표준편차를 설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 삶의 이유의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 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가 높은 경우 삶의 이유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자살사고가 더 적게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만을 나타낸다.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

표 9. 단순조절분석의 4가지 유형(Hayes, 2015/2013)

계수	X→Y의 계수( $b_i$ )	
	양(+)	음(-)
$b_3$ 의 계수	양(+)	완충효과
	음(-)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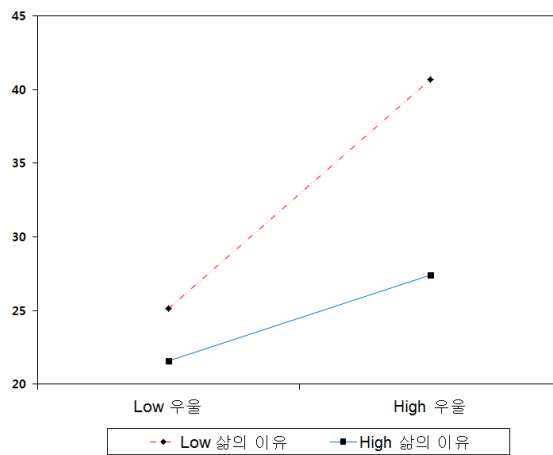


그림 1.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영향

해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의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삶의 이유의 어느 영역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를 사용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s) 분석이라고 알려진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을 실시하였다(Hayes, 2015/2013). 단순기울기 검증 시, 5가지 백분위(10th, 25th, 50th, 75th, 90th) 값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삶의 이유의 5가지 백분위(10th, 25th, 50th, 75th, 90th) 값 모두에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삶의 이유의 10~90th의 백분위 값 내에서 우울의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이유 수준이 클수록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이유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그림 2의 그래프 기울기들은 삶의 이유의 백분위 수준에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들을 나타낸다. 그림 2의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이유 수준이 매우 낮은 10th(105점), 그 다음으로 낮은 25th(117점)수준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더욱 가파르다. 반면 삶의 이유 수준이 매우 높은 90th(160점), 그 다음으로 높은 75th(148점) 수준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완화되었다. 이는 삶의 이유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낮춰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사고가 높고, 우울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사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 하위변인, 즉 생존과 대처신념, 가

표 10. 삶의 이유의 백분위 값에 따른 자살사고의 단순기울기 검증

조절변인	Effect( <i>b</i> )	SE	<i>t</i>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삶의 이유	10th(105)	.8459	.0800	10.570***	0.6885	1.0033
	25th(117)	.7176	.0686	10.460***	0.5827	0.8526
	50th(137)	.5039	.0695	7.254***	0.3672	0.6405
	75th(148)	.3863	.0804	4.807***	0.2282	0.5444
	90th(160)	.2580	.0975	2.646***	0.0662	0.4499

주. \*\*\* $p < .001$

LLCI(하한값), ULCI(상한값) =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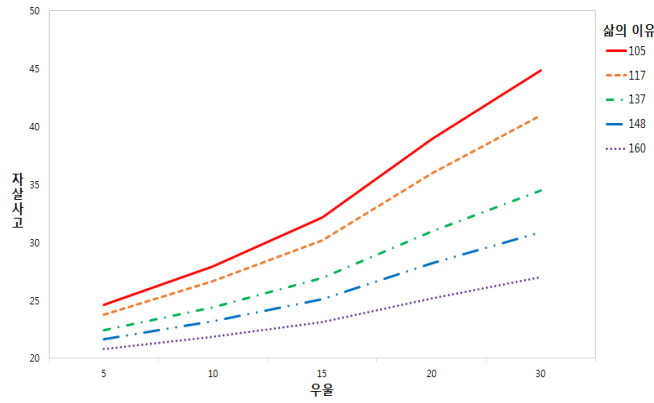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이유의 조건부 효과

표 11.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생존과 대처신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R <sup>2</sup>	ΔR <sup>2</sup>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478	.072	6.614***	.489***	.489***	156.871***
	생존과 대처신념		-0.400	.046	-8.766***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386	.070	5.481***	.540***	.051***	127.788***
	생존과 대처신념		-0.364	.044	-8.313***			
	우울×생존과 대처 신념		-0.019	.003	-6.006***			

주. \*\*\**p*<.001

표 12.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R <sup>2</sup>	ΔR <sup>2</sup>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814	.064	12.690***	.391***	.391***	105.081***
	가족에 대한 책임감		-0.677	.200	-3.391***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778	.063	12.301***	.420***	.030***	79.067***
	가족에 대한 책임감		-0.510	.199	-0.114**			
	우울×가족에 대한 책임감		-0.073	.018	-4.107***			

주. \*\*\**p*<.001

표 13.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미래기대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R <sup>2</sup>	ΔR <sup>2</sup>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716	.067	10.631***	.418***	.418***	117.637***
	미래기대		-1.687	.323	-5.229***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671	.067	9.974***	.440***	.022***	85.639***
	미래기대		-1.269	.337	-3.760***			
	우울×미래기대		-0.090	.025	-3.609***			

주. \*\*\**p*<.001

죽에 대한 책임감,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미래기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은 각각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논 의

자살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특히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자살은 국가차원에서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는 발달 특성 상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위기에 당면하기 쉬우며(권중돈, 2009)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Beautrai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성인의 자살사

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Davidson et al., 2011; Stellrecht et al., 2006), 지각된 짐스러움을 느낄수록 자살사고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최민영, 2015; 하정미 등, 2010)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Davidson 등(2011), Pfeiffer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Beck(1967)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Stellrecht 등(2006)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성인의 발달 특성 상 심리적 위기에 당면하기 쉽고 침울, 실패감, 무기력, 불행한 기분과 같

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울할수록 자신이 무능하고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 즉, 초기 성인의 발달 특성상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 및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압박감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스스로 결함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칫거리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이 견고해질 수 있다. 끝내는 이 상태가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며 오직 죽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Joiner, 2012/2007; Van Orden et al., 2010).

둘째,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우울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좌절된 소속감을 느끼고(Kleiman et al., 2013), 좌절된 소속감을 가질수록 자살사고가 높다는 선행연구(최민영, 2015; Kleiman et al., 2014)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Davidson 등(2011), Pfeiffer 등(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결과 경우, 연구 대상이 상이하며 자료 수집 방법이 다르고 특히나 Pfeiff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좌절된 소

속감의 일부 구성개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도한 안심 추구(excessive reassurance seek)와 같은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고(Coyne, 1976) 타인과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소극적인 비언어적 행동 특징을 보임으로써 낮은 사회적 유대감을 암시하는 행동적 특징들이 있다(Joiner, 2012/2007). 우울한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은 가까운 타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Davidson et al., 2011). 이로써 자신이 고립된 존재이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면 좌절된 소속감과 심리적 고통을 죽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자살사고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시사점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초기 성인의 경우,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다. 먼저,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쓸모없는 짐이며, 고립되어 있다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 및 정서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확인하고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신이 쓸모가 없고 타인에게 짐이 되며 이 상태는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담자의 왜곡된 지각을 적응적으로 수정 및 대체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약 자신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어디에도 속해있지 못할 것이라고 왜곡된 인

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라면,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과거, 현재에 대한 탐색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감, 유대감을 느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내담자의 왜곡된 인지를 적응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도록 도움으로써, 죽음만이 문제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이타주의를 경험하거나 응집성을 느낌으로써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 역시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 및 하위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삶의 이유,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시도력이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들이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들보다 삶의 이유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확인한 Malone 등(200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존과 대처신념이 자살사고를 중재하는 것을 확인한 김동연(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조절한다는 이지영(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는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

며, 삶의 이유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처 신념은 자살을 생각할 때라도 삶에 대한 의지나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결국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기원 등,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생존과 대처 신념이 있는 개인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사고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 혹은 ‘전체 사회 속에서의 자기’ 라는 개념을 지닌 한국인에게 있어서(이기원 등, 2010)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래기대는 삶의 이유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여(이기원 등, 2010) 새롭게 추출된 변인으로, 절망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계획을 가진 경우 자살사고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인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원칙도에서 각각 독립적인 하위변인이었고, 이기원 등(2010)이 타당화 하였을 때 함께 추출된 변인이다. 기존의 원칙도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는 자살을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것, 자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Linchon et al., 1983). 그리고 자살을 고려하거나 자살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ize, & Ellis, 2003). 그러나 Connell과 Meyer(1991)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렇듯 원칙도에 따른 기존의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은 물론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은 자살사고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 경우, 긍정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같은 삶의 이유는 자살에 대한 완충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죽음공포와 자살을 할 경우 타인의 비난과 같은 사회적 비난은 자살사고를 낮출 만큼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우울로 인해서 자살생각을 하고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과 같은 수동적인 태도는 자살사고를 완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초기 성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확립,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에 대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권중돈,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 성인 경우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발달 과업 이전에 자율성을 확립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처럼 자기 자신의 가치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우선 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사회적인 집단 속에서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염려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 타당화 된 삶의 이

유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의 삶의 이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한다면, 이들의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달 특성 상,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위기에 당면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이들의 삶의 목표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초기 성인의 내담자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대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가 현실에 맞추어 실현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담자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탐색하고 실천하도록 지지해준다면, 내담자의 자살사고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부정적인 삶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삶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을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일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이라고 알려진 삶의 이유 및 하위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초기 성인에게 부정적인 인지 요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 및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를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개입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가 있었지만, 초기 성인 집단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만19~35세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폭 넓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초기 성인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좌절된 소속감은 기존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Joiner(2005)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좀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자가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의 대인관계 변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즉,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거쳐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자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사고에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살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삶의 이유는 그동안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이라고 몇몇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우울과 삶의 이유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자살시도력이 있는 우울장애 환자들과 자살시도력이 없는 우울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Malone et al., 2000; Segal et al., 20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이라고 알려진 ‘삶의 이유’ 및 하위변인의 완충효과를 밝혀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19~35세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연구 대상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및 경기, 경상도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이 많았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의 특성

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측정변인의 평균 점수가 높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험군과 같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동시에 경험할 때 자살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주장(Davidson et al., 2009)이 있었지만, 두 변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Ribeiro et al., 2009) 좌절된 소속감 경우 선행연구에서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우울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Joiner가 제안한 ‘습득된 자살 실행력’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초기 성인의 실제 자살 시도 및 자살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석화, 나동성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49-71.  
권석만 (2011).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중돈 (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김동연 (2010). 군생활 스트레스가 군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절망감,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원 (2012).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경 (2011).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101-129.  
김신연, 채규만 (2013).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4(1), 1-13.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김혜진 (2016). 초기성인기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 :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창 (2010).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65-178.  
노상선, 조용래, 최미경 (2014). 대학생의 자기자비와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우울증상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3(4), 735-754.  
박 경 (2009). 부정적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및 우울과의 관계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

- 지, 1(1) 1-16.
- 박소영, 박경. (2016).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23-45.
- 박순천 (2005).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서미순 (2005).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예진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조절변인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양선미, 박경 (2015).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105-130.
- 여지영, 박태영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 유계숙, 손현겸 (2015).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인관계 욕구와 삶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75-100.
- 유혜선 (2015). 성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연령대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원, 현명호, 이수진 (2010).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227-242.
- 이윤주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중학생의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9(2), 659-673.
- 이지숙 (2013).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대처방법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321-344.
- 이지영 (2012). 삶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노 표현,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 (2015). 노인 자살위험 집단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67(0), 249-276.
-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차미영, 강승호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추경진, 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 최민영 (2015).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최인재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 최우경, 김진숙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1), 255-272.
- 최현정, 홍혜영. (2011). 대학생의 낙관성과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49-170.
- 통계청 (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223-24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Bagge, C. L., Lamis, D. A., Nadorff, M., & Osman, A. (2014). Relations between hopelessnes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Mediation by reasons for liv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1), 18-3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autrais, A. L. (2003). Suicide and serious suicide attempts in youth: A multiple-group comparison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93-1099.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nner, R. L., & Rich, A. R. (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me preliminary data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1), 50-63.
- Bower, G.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2), 129-148.
- Brent, D. A., Perper, J., Moritz, G., Baugher, M., & Allman, C. (1993). Suicide in adolescents with no appar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3), 494-500.
- Connell, D. K., & Meyer, R. G. (1991).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and a college populati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beliefs, and coping skil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4), 485-489.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2), 186-193.
- Davidson, C. L., Wingate, L. R., Grant, D. M., Judah, M. R., & Mills, A. C. (2011). Interpersonal suicide risk and ideati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0*(8), 842-855.
- Davidson, C. L., Wingate, L. R., Rasmussen, K. A., & Sligh, M. L. (2009). Hope as a predictor of interpersonal suicide risk.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5), 499-507.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Freedenthal, S., Lamis, D. A., Osman, A., Kahlo, D., & Gutierrez, P. M. (201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12 in sampl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6), 609-623.
- Galfalvy, H., Oquendo, M. A., Carballo, J. J., Sher, L., Grunebaum, M. F., Burke, A., & John Mann, J. (2006). Clinical predictors of suicidal acts after major depression in bipolar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Bipolar Disorders*, 8(5), 586-595.
- Garlow, S. J., Rosenberg, J., Moore, J. D., Haas, A. P., Koestner, B., Hendin, H., & Nemeroff, C. B. (2008). Depression, desper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llege Screening Project at Emory University. *Depression and Anxiety*, 25(6), 482-488.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ition*, New York: David Mckay.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파주: 신영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Heisel, M. J., & Duberstein, P. R. (2005). Suicide prevention in older adult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2(3), 242-259.
- Heisel, M. J., Neufeld, E., & Flett, G. L. (2016). Reasons for liv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e ideation: Investigating the roles of key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in reducing suicide risk in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20(2), 195-207.
- Hill, R. M., & Pettit, J. W. (2012). Suicidal ideation and sexual orien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rejection due to sexual orient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2(5), 567-579.
- Jahn, D. R., Cukrowicz, K. C., Linton, K., & Prabhu, F.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older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5(2), 214-220.
- Joiner T. E (2012).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가? (김재성 역). 서울 : 황소자리. (원전은 2007에 출판)
- Joine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M. D.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 -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646.
- Kandel, D. B., & Davies, M. (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3), 255-262.
- Kleiman, E. M., Law, K. C., & Anestis, M. D. (2014). Do theories of suicide play well together? Integrating components of the hopelessness and interpersonal psychological

- theories of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55(3), 431-438.
- Kleiman, E. M., Liu, R. T., & Riskind, J. H. (2013). Integrating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nto the depression/suicidal ideation relationship: A short-term prospective study. *Behavior Therapy*, 45(2), 212-221.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Random House Digital, Inc.
-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 Lizardi, D., Currier, D., Galfalvy, H., Sher, L., Burke, A., Mann, J., & Oquendo, M. (2007). Perceived reasons for living at index hospitalization and future suicide attempt.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5), 451-455.
- Malone, K. M., Oquendo, M. A., Haas, G. L., Ellis, S. P., Li, S., & Mann, J. J. (2000).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al acts in major depression: Reasons for liv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7), 1084-1088.
- McLaren, S. (2011). Age, gender,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Australian adul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1(6), 650-660.
- Miller, S., Segal, Daniel L., & Coolidge, Frederick L. (2001). A comparison of suicidal thinking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younger and older adults. *Death studies*, 25(4), 357-365.
- Miranda, R., Tsydes, A., Gallagher, M., & Rajappa, K. (2013). Rumination and hopelessnes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emotion dysregulation and suicidal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4), 786-795.
- Mize, A. E., & Ellis, J. B. (2003). Reasons for living and suicide ideation in young adults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hom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0(1-2), 1-16.
- Nemeroff, C. B., Compton, M. T., & Berger, J. (2001). The depressed suicidal patient: Assessment and treatm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32(1), 1-23.
- Nsamenang, S. A., Webb, J. R., Cukrowicz, K. C., & Hirsch, J. K. (2013). Depressive symptoms and interpersonal needs as mediators of forgiveness and suicidal behavior among rural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9(1), 282-290.
- O'Keefe, V. M., & Wingate, L. R. (2013). The role of hope and optimism in suicide risk for American Indians/Alaska Nativ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3(6), 621-633.
- Pfeiffer, P. N., Brandfon, S., Garcia, E., Duffy, S., Ganoczy, D., Kim, H. M., & Valenstein, M. (2014).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depressed veterans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2(1), 277-281.
- Reynolds, W. M. (1991).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2), 289-307.
- Ribeiro, J. D., & Joiner, T. E. (2009).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 behavio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2), 1291-1299.
- Segal, D. L., Gottschling, J., Marty, M., Meyer, W. J., & Coolidge, F. L. (2015). Relationships among depressive, passive-aggressive, sadistic and self-defeating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with suicidal ideation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older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9(12), 1071-1077.
- Stellrecht, N. E., Joiner Jr, T. E., & Rudd, M. D. (2006). Responding to and treating negative interpersonal processes in suicid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9), 1129-1140.
- Strosahl, K., Chiles, J. A., & Linehan, M. (1992). Prediction of suicide intent in hospitalized parasuicides: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3(6), 366-373.
- Van Orden, K. A., Bamonti, P. M., King, D. A., & Duberstein, P. R. (2012). Does perceived burdensomeness erod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6(7), 855-860.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J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원 고 접 수 일 : 2017. 10.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16

게 재 결 정 일 : 2018. 07. 04

##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Su Jin Park**

**Jong Nam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For this study, 331 young adults completed a survey comprised of the following: K-CES-D,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Reasons for Living, and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PSS PROCESS macro, bootstrapping method (based o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d simple slope test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reasons for living significantly moderated the impa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for counseling and intervention to be effective with young adults, clinicians should focus o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reasons for living, coping beliefs, family responsibility, and future expectations.

*Key words* : young adults, depressio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suicidal ideation, reasons for living